

시론



천 세 진
문화비평가·시인

시칠리아의 시라쿠스에서 태어난 엘리오 비토리니(1908-1966)는 『시칠리아에서의 대화』에 이렇게 썼다. “어머니는 모포에 둘러 싸인 채, 자신의 물건들 사이에서 그 각각의 물건처럼 세월로 가득 차 있었고, 지나간 인류, 어린 시절과 그 이후, 역사를 넘어선 남자와 자식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안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계속할 것이며, 여전히화로에다 청어들을 구울 것이며, 발에는 아버지의 신발을 신고 있을 것이다. 나는 바라보았고, 두려웠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고 살아남은 자들 사이에 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살아남은 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살아남은 자로서의 해석을 교환 중인 것이다. 죽은 자들이나 죽은 것들이 자리에 초대받기는 하지만 그들은 말하지 못한다.

탄핵, 경제 위기, 전쟁, 양극화... 격렬하게 나누는 이야기 안에는 명분과 의무, 그 비슷한 무엇이 또 들어있다. 그것들은 무거운 그늘을 드리우고 많은 아이들이 그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다. 다르게 사는 이들도 있다. 명분과 의무, 그 비슷한 무엇이 몸과 정신을 잔혹하게 짓밟아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고, 오로지 살아남아야 하고, 우선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 말이다. 어쩌면 후자가 이 세계의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살아남아야 하는 세계가 내내 심상치 않다. 올봄의 어느 날 갑자기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더니 이틀 후 눈이 쏟아지고 영하가 됐다. 그 서늘에 꿀벌의 70% 넘게 목숨을 잃었다. 꽃은 가득 피었지만, 꿀벌의 날갯짓 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어떤 징후였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그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무서운 징후가 그것 말고도 많았을 텐데, 격렬하고 선명한 명분과 의무가 자리에 먼저 초대되었다. 보이지 않는 징후들은 환히 보이는 것들보다 형편없이 가벼운 무게를 지닌 것들일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일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거대한 거울의 방이 되고 말았다. 굴절된 우리의 입이 사방에 반사되어 누가 말하는지, 누구의 말을 깊이 들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게 한다. 거울은 진짜가 아닌 것들을 끝없이 복제하여 우리 눈동자 속으로 강압적으로 집어넣고, 우리 그렇게 들어온 가짜를 정보로 만들어 머릿속에 쌓아두고 거울의 방에 함께 갇힌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한다. 가짜는 계속 증폭된다. 그런 시간이 길게 흘러가고 있다.

서편이 붉어졌을 때 해는 이미 그 자리에 없다. 지구는 등돌고 햇빛은 대기를 거쳐오는 동안 굴절되어 우리에게 온다. 해는 이미 켜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징

후 너머의 것을 보아야 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생 내내 세계의 위치와 모양, 성질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품고 살다가 끝날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과 색과 성질은 세계의 본질적 모습이 아니라 굴절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굴절된 것들 가운데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서너 개 선택한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굴절이 일어난다. 선택된 것 어느 것도 선택되지 않은 것을 대변하지 못한다. 모든 존재는 다른 것들을 대변하기 위해 탄생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을 대변할 뿐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 안에 든 모든 것들이 그렇다. 예외는 없다.

어린 물총고기는 부모에게서만 물총 쏘는 기술을 배우지 않는다. 형편없는 물총 실력을 지닌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부모의 기술만을 배웠다가는 굶주리게 된다. 어린 물총고기들은 굴절을 탈월하게 계산하여 실제 위치에 정확하게 물총을 쏘는 물총고기를 따라다니며 기술을 배운다.

말들도 굴절된 것들이다. 굴절된 세계를 보고 만들어낸 말이 어떻게 굴절되지 않았는가. 굴절된 말의 음모를 꿰뚫고, 세계의 굴절 정도를 계산할 수 있는 자만이 세계의 진상을 깨달을 수 있다. 깨달았다고 해서 꿀과 행복이 그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 굴절된 세계를 믿는 광신도들 속에서 이단적 광인으로 존재할 뿐이다.

힘없는 존재들에 대한 애린愛隣을 품길 바랄 뿐이고, 용서는 언급하지 말기를 바란다. 용서는 언제나 가해자와 가진 자들의 언어였다.

이립(而立)의 지방자치 엄정한 평가부터

우리 지방자치는 해방 이후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항상 중앙정권력의 하위 단위로 치부돼 험난한 부침을 겪으면서도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이승만이 1952년 첫 지방선거부터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씨앗을 말려 군사독재를 이어가려고 했다. 윤석열정부까지도 주민자치를 억압하고 12·3 내란으로 지방의회를 해산하려고 한 것은 아직도 여전한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아픈 역사이다.

그래서 ‘스스로 서는 이립 단계의 성숙한 지방자치’는 그 한계와 취약성, 상처들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엄정하게 분석 평가해 혁신 대안을 치열하게 모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물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 30년 평가’를 추진하고, 지방자치 관련 학회에서도 학술적 차원에서 평가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러한 작업들이 자화자찬식 성과 위주 평가나 단편적 추진사업의 나열과 연혁 정리에 그쳐서는 안된다.

우선 평가의 대상도 광주시나 전남도 등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 행정기관 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정치, 지역정책의 결정구조와 결과도 세세하게 들여다 보아야 한다. 특히 30년 동안 지역변화와 주민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 정책들의 공과를

사례별로 정리하고 탐색하는 것은 각각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 방식과 지역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이립 성숙단계의 지방자치는 선진외국의 제도와 정책들을 모방하고 도입하는 벤치마킹의 실험적 단계에서 국내 각 지역의 선도적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한국형 지역선도정책들이 뿌리내리는 시대여야 한다.

썩이지 않는 청년 유출로 130만대로 줄어든 광주시 인구는 공공서비스 수요나 수준에 감축관리의 결정적 변화를 몰고 오며, AI형 과학기술의 확산은 지역 고용시장과 직업군의 변화, 주민과의 소통과 서비스 제공 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더 높아진 자치와 참여 욕구, 행정 수비범위의 무한 확대, 지방재정의 한계는 더욱 유능하고 대응적인 지방정부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요구들은 중앙의 경직된 지방자치제도와 획일적 지방정책들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방이 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행사하고, 주민과 함께 공공서비스 생산의 책임과 권한을 분담하는 공동생산 시스템으로 다원화, 유연화할 것이 필요하다. 이립의 지방자치 30년은 과거에 대한 축하와 기념을 넘어, 한국 지방자치제도를 재정비하고, 광주·전남의 미래와 비전을 설계하고 깊이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이다.

〈이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장마철 ‘자연재해’ 대비 철저

장마철이 본격화됐다. 올해는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다.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도 극심할 전망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먼저, 집중호우와 태풍을 대비해 도로 침하 부위, 산사태 위험, 하천 범람 위험 지역, 지하차도, 배수구, 하수구 등 미리 점검하고 특히 침수 위험 지역의 경우 주민 대피로 및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강풍을 대비하여 주택의 창문, 간판, 지붕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산사태 위험지역의 경우 주민들에게 사전 예보에 따라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갑자기 일이 생겼을 경우 우왕좌왕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자치칼럼



이 용 연
한국마을자치연구소 대표
광주마을학교 교장

올해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6·25 전쟁 중인 1952년 4월 시읍면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우리 지방자치는 한국 사회의 격동 속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제 민선자치 부활 30년과 함께 이립(而立)의 단계에 들어섰다.

사람이 아동청소년기를 거쳐 당당히 서고 스스로 자립하는 청년이 되어가듯이,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도 부활·성장기를 거쳐 이제 성숙 단계에 접어든 것은 크게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다. 이에 정부는 10월29일 지방자치날에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전남도 등 각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관련 연구단체에서도 7월1일을 기해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한다.

문곡·물피 도주시 적극적 CCTV 열람

독자투고



최근 아파트 주차장 및 공용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문곡 및 총격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때 운전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경찰관 입회 없이는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는데 이는 엄격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183건

(5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 운영자(아파트 관리사무소, 소규모 병원 등 포함)는 10일 이내에 열람 여부를 결정해 조치해야 한다.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하고, 이때 “경찰 입회 필요” “경찰 신고 필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앞으로 아파트 등 주차장에서 문곡 및 물피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적극적으로 CCTV열람을 요구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이치영·완도경찰서 읍내지구대〉

社說

지방소멸 시대 주목받는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소개, 호응을 얻었다. 김 지사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략 포럼에서 저출생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는 지역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실제로 ‘가족·기회·유입·인착·공존’ 5대 축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1조 3천817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했으며, 특히 시·군과 공동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20만원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 만원주택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전남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1.13명을 기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전국 평균(0.82명)보다 0.31명이나 높다. 1~3월 출생아 수도 2천23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5% 증가했다. 2024년 1.03명의 반전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남도는 출생기본수당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영·유아가 집중됐던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넘어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했다. 전남도는 2030년 1.5명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빠른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인한 인구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전남은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데 지속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을 예로 든 김 지사의 국가 출생기본수당 제안에 주목하길 바란다. 아울러 지방이 청년 중심의 일자리 등을 주도적으로 설계·집행하도록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

지방을 살리는 것이 곧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인구와 산업, 자본이 쏠리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저출생 대응에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전남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 거대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결정과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남의 비법을 전국에 전파해야 한다.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더 많은 아이와 가족이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가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영산강 익사이팅 존 경찰 수사 서둘러 결론내야

광주경찰청이 영산강 익사이팅 존 사업과 관련,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이례적인 게 아니라며 반박했다. 북구 동림동 산동고 일원에 들어설 익사이팅 존은 사업비 416억원을 투입해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및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민선8기 감기정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국제 설계를 실시해 당선작을 선정했으나 탈락 업체들이 특허를 줬다고 급지 가져분을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법원은 “당선작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광주시가 반발하는 것은 판결 이후의 강제조사로 행정의 신뢰까지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강 시장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성주 청장에게 직접 전화로 항의한데 이어 공개 석상에서도 비난을 이어갔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6월 정례회에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따위 짓거리를 하느냐고 했고 기자들과 만나선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역

울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내내 침묵하던 광주경찰이 이번엔 언론 간담회를 통해 처음으로 의견을 낸 것인데, 감정의 골이 메워질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실제로 박 청장은 “1년에 집행하는 영장 1만5천건 중 대물 관련은 4천건이다. 하루에 10건 정도일 건데 그중에 하나”라며 ‘통상적 절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청장은 그러면서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면 수사 진행에 바람직하지 않아 말을 아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제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특정 언론의 부추김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저격도 했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시민들은 논란을 조속히 매듭짓기를 바라고 있다. 역점사업 지연과 행정력 낭비 등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혹시 한 점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광주시, 광주경찰의 입장 모두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수사를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아침꽃은 詩

연심의 장르, 손톱

명인아



당신은 무슨 색인가요
고요의 회색
봄, 여름, 가을, 겨울, 손톱을 물들이면
토양의 성분에서 따라
일곱 가지 색으로 변하는 수국
처림
나와 계절은
환경에 따라 우리들이 변하는
어느 손가락에 닿아 있을까요
당신을
무슨 색으로 물들일 것인지요
기다림의 연분홍
(시집 ‘나는 이제야 봄으로 물든 생로병사 단풍
다’, 상상인, 2022)

[시의 논]

사랑하여 그리워하는 애뜻함이 연심이다. 연심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아니다면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은 영원한 화두이니까. 공작새가 왜 그 화려한 꼬리를 추켜세우고 우아한 퍼포먼스를 펼치는가? 휘파람새는 무슨 일로 종일 숲속을 예쁘고 청량한 노래로 물들이는가? 연심을 품었기 때문이다. 자기에도 좋다. 가족에도 좋다. 이성에도 좋다. 나아가 인류에도 좋다.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다른 사람도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것이란 점이다. 예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능동적인 관심과 돌봄으로 정의한다.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며 주는 행위 자체에 기쁨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깊은 철학적 성찰을 기반으로 진정한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법. 사랑의 빛깔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문학적 프리즘을 통과한 연심의 분광은 현란하다. ‘기다림의 연분홍/청춘은 초록의 다양/생로병사 단풍/고요의 회색’ 색채학적 시학이 뿜어내는 이미지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지시한다. 나의 손톱을 물들인 연심은 어느 계절, 또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치열한 손톱의 빛깔은 나의 성정을 드러내는 강렬한 지표이자 내면의 날숨인 것이다.

〈윤상현·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650-2016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편집국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650-20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